

女性研究

The Women's Studies

2015. Vol. 88 No.1 pp. 7~42

북한이탈여성 이동(移動)의 재해석 : 노마드(nomad)로서의 의미는 무엇인가

엄태완

북한이탈여성 이동(移動)의 재해석 : 노마드(nomad)로서의 의미는 무엇인가?¹⁾

엄태완²⁾

초 록

이 연구는 북한이탈여성들의 이동을 재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이들의 새로운 정주지인 남한사회에 어떤 의미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현상학적 연구방법으로 9명의 연구참여자와 심층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으며, 현상들의 통합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았다. 우선 노마드로서 연구참여자들은 생명력 회복을 위한 도주를 결정하면서 아시아 각국을 이동하였다. 이 범주에서 연구참여자들의 추상적 진술을 바탕으로 한 주제들은 ‘일상의 코뮤티’, ‘무희망’, ‘방랑의 원초적 열망’, ‘인간 존엄성의 상실’ 이었다. 다음으로 연구참여자들의 역동적 이동은 노마드적 사유와 변화, 즉 자신들의 가치와 삶의 방식을 끊임없이 바꾸어 ‘노마드적 가치’를 창조하도록 하는 생활양식의 출발이었음을 확인하였다. 이 범주에서 연구참여자들의 추상적 진술에 의한 의미들은 ‘노마드의 회복력’, ‘노마드의 창조성’, ‘노마드의 상생과 통합’이라는 주제들로 범주화되었다. 이를 통해 남한사회의 북한이탈여성들이 단지 사회적 부담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존재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북한이탈여성, 노마드, 이주, 생명력, 노마드로서의 가치.

I. 서 론

대부분 북한이탈여성들³⁾은 자기 자신 혹은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

1) “이 논문은 2014학년도 경남대학교 연구년 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2) 경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tweom@kyungnam.ac.kr).

3) 통일부 자료에 의하면 2014년 12월 현재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이탈주민 27,518명 중 70%인 19,267명이 여성이며, 최근 입국자들의 경우에는 거의 80%에 이를 정도로 여성들의 비율이 증가하였다(통일부 홈페이지, 2015).

하고자 탈북하여 중국이나 아시아 각국에서 생활하다가 남한으로 이주하고 있다. 이들 중 많은 수의 북한이탈여성들은 중국 등의 국가에서 생존을 위해 남성과 동거를 하거나, 인신매매를 당하거나, 불법체류자로서 고통스런 삶을 살아 왔다(박영호 외, 2010). 이런 상황은 이들에게 또 다른 선택을 하도록 하는 힘으로 작용하여 새로운 공간으로의 이동, 즉 남한이나 다양한 국가로 이동하게 만들었다.

인구이동은 그 지역 공동체의 변화를 불러오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이러한 연유로 이주민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은 매우 높으며 북한이탈여성들도 예외는 아니다. 지금까지 북한이탈여성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중국이나 남한에서의 심리사회적 문제 혹은 적응의 이슈 등을 다루고 있다(김승현·최빛내, 2013; 김현경, 2012; 박성정·오은진, 2012; 한인영·홍선희, 2012). 즉 북한이탈여성은 국제적 문젯거리, 남한사회 적응과 부적응의 사회적 과제로만 보여져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북한이탈여성의 탈북, 중국이나 아시아 각국에서의 일시적 거주, 남한이나 세계의 다양한 나라로 이동하는 현상을 새롭게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우선 우리는 북한이탈 여성에 대해 문젯거리로 보는 관점에서 역동적 변화의 매개체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여성들이 남한에서 사회적 부담으로만 부각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력을 부여하는 노마드(nomad)⁴⁾로서 자리매김할 가능성을 발견할 필요가 있다. 즉 북한이탈여성을 사회적 부담요인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다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매개체로서의 가능성을 탐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이탈여성들의 독특한 이동 경험은 새로운 정착지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는 논리적 실증주의에 의한 객관적 자료 수집과 수학적 자료처리보다는 이들이 이동하면서 겪은 경험의 의미가 일상적 세계와 관련 지워서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라는 현상학적 연구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북한이탈여성의 이

4) 노마드(nomad)는 일반적으로 '유목민', '유랑자' 등으로 번역하고 있으나, 여기서는 그대로 노마드로 표기한다. 노마드는 프랑스의 철학자 들뢰즈(Gilles Deleuze)에서 비롯된 현대 철학의 용어이다. 현대사회에서는 철학적 개념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심리 현상을 설명하는 말로도 쓰이고 있다(조윤경, 2007). 이 글에서도 공간적인 이동뿐만 아니라 새로운 가치와 삶의 방식을 끊임없이 창조하는 행위자로서의 개념으로 접근한다.

동 체험 속에 나타나는 그대로의 경험을 중시하여 어떠한 비판·반성도 하지 않는 자연적 태도만이 그들의 현재 일상적 삶과 관련된 행위의 의도나 동기 등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노마드로서 북한이탈여성들은 과연 남한사회에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 북한이탈여성들은 자신들이 이동하면서 경험한 사건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연구문제 2 : 북한이탈여성들이 이동하면서 경험한 사건들의 창조적, 긍정적 의미의 본질은 무엇인가?

II. 선행연구 검토

전 세계적으로 개인의 욕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발적 이주민들과 인종, 종교, 정치적 이유 등에 기인한 난민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주민들과 난민들의 재정착지 삶은 개인적, 가족적, 사회적, 문화적 차이와 문제로 인하여 불안정한 경우도 많다. 이주민과 난민들의 아동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사회문화 접촉은 다양한 혼란과 어려움을 겪게 되며, 선행연구들에서는 심리적, 정신적인 문제를 심각하게 지적하고 있다. 이주민과 난민들은 우울, 불안,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신체화, 자살사고와 자살행동이 증가하고, 이주과정의 스트레스로 인하여 가족 갈등, 심리적 불안정이 발생하며, 문화적응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아동학대, 노인학대, 부부폭력의 위기상황에 노출될 수 있다고 하였다(Ben-David and Lavee 1994; Egli et al. 1991; Potocky-Tripodi, 2002; Ying 1999). 또한 이주민들은 이주 후에 재정착 하는 과정에서도 주택, 고용, 실업, 언어, 사회경제적 지위 및 가족, 결혼, 성역할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게 된다(Bemark et al., 2003). 특히, 외국 난민들의 경우에 이주과정과 재정착하는 과정에서 겪는 위기적 사건들은 우울증,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심각한 정신적 문제를 유발하게 된다(Blair, 2000; Chung and Bemak, 2002).

이러한 국외 이주민과 난민 연구들을 바탕으로 북한이탈여성을 비롯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심리사회적 문제와 적응의 다양한 이슈들이 연구되었다(전우택, 2000; 정병호 외, 2006; 조정아 외, 2006). 또한 인구이동으로 인한 다양한 변화들도 주목하고 있다. 특히 남한사회에서 접촉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남북주민들의 갈등과 통합에도 관심을 가지는 연구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우리보다 앞선 경험이 있는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나타난 동서독 주민들의 갈등은 개인적,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김형식, 2000).

독일의 통일은 초기의 기쁨과 환희를 지속하지 못하고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실망과 불안의 결과를 초래하였다. 동독인들이 서독체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심리적인 이중적 고통을 지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서독인들도 스트레스와 불안을 표출하였다. 독일통일에서 비롯된 경제위기는 외국인이나 이방인을 적대시하는 제노포비아(xenophobia)현상을 나타내었다(장명학, 2006). 더욱이 독일통일은 통일 이전 동·서독인들 간의 우호적 감정을 유지하고 못하고 통일 이후 낮설고 대립적인 감정으로 바꾸어 놓았다. 이렇게 통일로 인해 동독과 서독인들에게 남긴 상처는 독일 사회에 여전히 부담이 되고 있다(나광은, 2004).

통일 이후에 동독인들이 가진 집단적 자의식은 ‘이등국민이라는 감정’과 ‘서독인과 다르며, 차별 받는다’는 것이었다(김누리 외, 2006). 현재 북한이탈여성들은 남한에서 유사한 차별적 인식을 가지기도 한다. 남북통일 이후에도 북한주민들 사이에 이러한 공유되는 집단적 자의식을 가질 수도 있다. 반면에 서독인들은 동독에서 ‘지참금 한 톨’ 없이 빚만 잔뜩 짊어진 채 독일사회에 합류하여 자신들을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였다(김누리 외, 2006). 따라서 동독의 모든 것은 제거대상이 되었다. 현재 남한의 북한이탈여성들의 경우에도 그들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제거대상이 되고 청산해야 할 문제로 지적받고 있다. 남북통일 이후에도 유사한 사회문화적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⁵⁾.

5) 남북의 경우는 독일보다 더욱 심각할 수 있다. 왜냐하면 동서독은 통일 이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할 수 있었으며, 동독의 경우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문화 인프라가 존재하고 있었다(김누리 외, 2006). 북한은 동독 수준의 문화와 일상생활의 수준을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가 없으며 남북주민의 정서적 거리감도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의 경험으로 볼 때 북한이탈여성들을 지금처럼 사회적 부담이나 갈등요인으로 파악하는 접근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은 북한이탈여성들과 남한주민의 통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북한이탈여성들이 이동하면서 경험한 창조적 선택과 긍정성이 현재 남한사회에 어떻게 의미 부여되며 사회적 생명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본다. 이를 통해 노마드로서 창조적 행위 과정에 있는 북한이탈여성들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이들의 긍정성을 더욱 극대화 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 이는 중국에 남북주민 통합과 연결되는 과정으로의 작업이 될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이 연구의 연구참여자는 북한이탈여성들 중 연구의 모든 과정에 동의한 여성들이 대상이었다. 이들 중에 질적 연구에서 표본 추출의 두 가지 기본적인 원리인 적절성과 충분성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연구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표본 추출의 적절성을 위해 노마드로서 북한에서 이동하여 중국과 남한에서 각각 3년 이상의 정주 경험이 있는 대상자들 중에서 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하나센터의 도움으로 북한이탈주민 밀집지역의 여성 대상으로 표본 추출의 적절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예비 연구참여자를 14명 확인하였다. 이후 연구 참여에 적극 동의한 9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1차 면담은 1시간 정도로 연구 과정의 설명, 연구결과와의 활용 및 연구자와 연구참여자의 관계형성, 이후 면담 약속으로 이루어졌다. 2차 면담은 연구참여자에 따라 2-3시간 정도 실시하였으며, 더 이상의 새로운 자료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3년 4월부터 7월까지 이었다. <표 1>은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표 1〉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사례	나이	학력	출신지	탈북년도	입국년도	북한 주요직업	남한 직업경력	가족 사항
1	39	고졸	함경북도	1999	2009	공장일	단순기능직	남편, 딸
2	41	고졸	함경북도	2000	2008	공장일, 장사	아르바이트	없음
3	49	고졸	함경북도	2000	2007	공장일, 장사	식당일	없음
4	47	고졸	함경북도	1997	2008	장사	일용직	없음
5	37	고졸	양강도	2006	2010	공장일, 장사	없음	남편, 딸
6	29	고졸	함경북도	2005	2009	장사	일용직	남편
7	34	고졸	함경북도	1998	2008	군인	일용직	남편, 딸
8	33	고졸	함경남도	2001	2009	장사	통게이트 근무	남편
9	37	고졸	함경북도	2002	2009	농장일	아르바이트	남편

2. 자료수집 및 분석 방법

이 연구는 현상학적 연구방법⁶⁾을 통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 현상학적 연구방법은 Van Kaan과 Giorgi와 Lisabeth의 방법 등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생활세계에서 일상의 체험을 통해 인간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콜라이찌(Colaizzi)의 자료수집과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콜라이찌는 자료수집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네 가지의 자료수집 방법 중에 마지막 두 방법에서는 자료수집과 분석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최영희 역, 1993). 자료분석은 자료수집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콜라이찌의 분석방법은 기술된 내용에서 의미 있는 문장이나 구를 추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일반적이며 추상적인 진술을 만들어 의미를 구성하여 주제 묶음으로 범주화한 후 체험의 본질적

6) 현상학 접근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기본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Spiegelberg, 1975; 홍기형, 1997에서 재인용). 첫째는 현상학적 접근방법은 우리가 실제 체험한 사물과 현상들을 아무런 선입견이나 편견 없이 우리의 의식 속에 나타난 그대로를 직접 탐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둘째는 현상학은 우리의 의식 속에 나타난 현상들의 구조를 통합적으로 탐구하고 이해하는 것이다. 우리가 의식하고 있는 경험을 들추어 이들 경험이 어떻게 생겨났으며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통합적으로 이해하여야 된다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연구자는 이와 같은 현상학적 접근의 기본 입장을 연구 시작부터 끝까지 지속하였다.

구조를 기술하는 것이다(신경림 외, 2004). 이와 같은 자료수집 및 분석의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IV. 분석결과 및 논의

노마드로서 북한이탈여성들의 잠재된 의미를 발견하는 과정을 반복하여 수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주제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표 2 참조). 북한이탈 여성의 이동은 개인적 방랑 욕구에서 시작되었지만 공간적 범위가 확장되면서 개인을 넘어 새로운 사회에도 가치 있는 존재로 의미부여 되는 출발이었다. 이러한 탐색에서의 핵심적 주제는 생명력의 이동, 즉 의례적인 일상으로 구조화된 공동체 내부에 역동적 이동으로부터 탄생한 새로운 생성물을 내던져 줌에 있었다. 노마드로서 북한이탈여성들은 지역 공동체에 새로운 가치, 더 나아가 상생의 변화매개체로 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2〉 북한이탈여성의 이동 의미

생명력 보존을 위한 도주			노마드로서의 가치	
주제 묶음	주 제		주제 묶음	주 제
경계에 선 생명력	· 일상의 코뚜레	⇒	노마드의 회복력	· 노마드적 열림 에너지
	· 무희망	⇒		· 노마드의 유연성
		⇒	노마드의 창조성	· 노마드적 성찰 · 노마드적 도전
도주의 조건	· 방랑의 원초적 열망 · 인간 존엄성의 상실		노마드의 상생과 통합	· 노마드로부터의 상생 · 노마드의 주변과 중심

1. 경계에 선 생명력 대(對) 노마드의 회복력

연구참여자들의 고통스런 코뚜레 같은 일상의 삶과 무희망으로 인해 파생된 위태로운 생명력은 이후 역동적 이동의 과정을 통해 사람 살리는 ‘회복력’으로 의미를 부여받을 수 있는 선협적 힘이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참여자들은 가치 없다는 존재들의 가치를 확인받으면서, 이들의 노마드적 성향

으로 인해 태생된 열림을 통한 새로운 질서와 가치를 형성하게 한 초석은 ‘경계에 선 생명력’과 관련이 된다는 맥락을 이해 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들의 구조적 가설에 대한 표현들은 아래에서와 같다.

1) 일상의 코뚜레 대(對) 노마드적 열림 에너지

(1) 일상의 코뚜레

북한이탈여성들은 다양한 상황에서, 출생부터 어떤 시점까지 생명력을 보존하기 위해 이끌려 다닐 수밖에 없었다. 북한이탈여성들은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기 이전부터 생명력 보존을 위한 행위에 참여하고 있었다. 북한에서는 일상생활을 위한 사회적 제도들이 충분히 기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족과 같은 비공식적 자원들이 생존을 위한 필수적 도구일 수밖에 없다. 연구참여자와 같이 모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아동에 의해 아동이 양육되거나, 개인적 기아는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지 않았으며, 가족의 생존을 위해 개인의 신체를 희생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일상의 삶이 생존을 위해 췌바퀴 돌아가듯 얽매어 있다는 의미다. 즉 개인의 생명력 보존이 일상의 의미이고 목표가 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의 일상적 삶은 언제나 기본적인 욕구인 생존과 관련되어 있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의 생명력 보존은 일상성에서 늘 위태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일상이란 ‘날마다’, ‘다른 날과 다름없는 보통의 날’, ‘늘 되풀이되는 나날들’, ‘하루하루’ 또는 ‘그날그날’ 등을 뜻한다. 일상성은 나날을 살아가는 실존 방식이며, 누구에게나 익숙한 것, 사회적으로 습관화된 것이다(남정희, 2004). 연구참여자들의 일상성은 하루하루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 체득한 생활양식으로 이루어졌다. 연구참여자들은 일상의 인위적인 삶과 불완전함을 채신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실존적 공허와 실제적 고통 또는 불완전성에 의해 무기력하고 무의미한 일상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

“사람들이 뭐 먹지 못해서 쓰러졌나? 하지요. 굶어서 쓰러졌나? 하지요. 뭐 아프니까 어떻게 창피스러운 것도 몰라요. 정신이 없으니까... 그래 가지고

이제는 다 죽었구나 했어요. 저는... 일어날 힘도 없고 열이 막 나니까... 그러나 내 생각에는 오직 살아야 된다. 오직, 죽으면 안 된다. 꼭 살아야 된다. 살고픈 욕망은 그 때 당시에는 강해져요. 살아야 된다.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꼭 살아야 된다(사례1)”

“그러니까 그 소... 소외양간처럼... 맨 바닥에 짚을 깔고 거기서 날 낳았거든요. 날 낳다가. 어머니가... 나를 낳고 이레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다음 내 위에 언니가 있었대요. 그래 그 언니가... 9살 된 언니가 나를... 동생인 나를 업고서리 이집 저집에 동냥젖을 얻어 먹이다가...(사례4)”

“그러니까 나머지는 엄마가 장사해서 벌어야만 사는데 우리 엄마가 장사 할 줄 모르다 보니까 그저 쪼개 살고 쪼개 살고 하다 보니까 우리 엄마가 선택한 길이 수혈소에 다녔단 말입니다. 누구한테 이런 이야기 한 적 없는 데... 수혈소 가면 피를 팔아서...(사례5)”

(2) 노마드적 열림 에너지

연구참여자들은 일상의 구조적 억압으로부터 벗어날 어떠한 개인적, 사회적 장치도 발견할 수 없었다.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개인의 일상적 삶을 활력으로 바꾸기 위한 문화적 장치가 축제이다. 축제는 모든 제약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초월적 일탈을 통해 일상적인 삶의 새로운 정렬을 한다. 축제를 통해 일상을 벗어난 일탈은 자기의 정신적 고양과 새 가치와 새 질서의 정렬이라는 효과를 목적으로 한다. 일상에서의 일탈과 그로 인한 무질서는 나태해지기 쉽고, 진부해지기 쉬운 삶과 의미를 새로이 쇄신하고 정돈하는 기능을 한다(이정재, 2001). 연구참여자들의 경우에 일상적 삶의 무기력과 의미를 재조정하고 새로운 나날을 살아갈 수 있는 축제와 같은 문화적·사회적인 장치들을 일상에서 경험하기가 쉽지 않았다. 따라서 이들은 원초적인 생명력을 일상으로부터 회복하기 어려웠으며, 일상의 일탈을 통한 새로운 삶의 활력과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진부한 일상에 이끌려 다닐 수밖에 없었다.

연구참여자들의 무한 반복적인 수동적 침체의 이면에는 새로움에 대한 이끌림과 삶의 모험에 대한 갈망도 동시에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즉 연구참여자들은 일상의 고통스런 무기력의 반복을 통해 자신의 생명력 회복을

위한 상상적, 실제적 열림을 지향하였다. 이러한 힘을 바탕으로 이들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동 충동과 모험에 대해 열린 자세로 대처하였다. 이 과정에서 나타난 방랑은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는 힘이 된다. 북한이탈여성들의 유목적 행위는 그들과 관련 있는 지리적, 사회적 공간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연구참여자들의 경우에도 남한으로 오는 여정은 정해진 일반적인 방식이 아닌 루트를 통해 왔지만 이는 오히려 우리 사회를 오래 지속되게 하는 안정적 제도들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들은 일상의 무한 반복되는 고통에서도 생에 대한 열정이 지속되었으며, 이에 추동된 이들의 이동 과정에 보여준 자유로움과 노마드적 열림 에너지는 기존 사회에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는데 하나의 의미로 작용할 것이다.

“사철을 다 방황생활하구요. 그 다음에는 고향 땅을 등지고, 부모 형제도 다 등지고 그저 각 곳에 안 간 나라가 없잖아요. 중국에도 안 간 성이 없어요. 북한사람들이 안 간 성이 없어요. 각 곳에 다 있어요. 북한사람들이. 탈북자들이. 살 길을 찾아서(사례1)”

“나는 생각이요. 나는 내가 이 자리 머물러 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는 내가 발전하고 싶고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장담은 못 하겠지만...(중략) 정말로. 내가 너무 자아도취된 거,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거 아닌 것도 모르고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하여간 내 생각은 그렇거든요(사례6)”

연구참여자들의 개인적인 일상의 얽매임으로부터 생명력을 회복하기 위한 열린 행위는 새로운 정주지에도 새로운 열림의 질서를 부여하게 된다. 국제적 이동의 근대 역사를 통해서도 인구의 이동은 문화이동을 의미하며 새로운 문명을 탄생을 가져오기도 하였다. 근대 역사에서 국제적 인구이동의 첫 출발은 1500년부터 1800년까지의 중상주의 시기로, 경제의 성장과 식민지화의 진행으로 인해 유럽인들이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 등으로 이주한 것이다. 이후에도 산업화, 제1차 세계대전, 탈산업화 등의 영향으로 대규모 국제적 인구이동이 있었다(김용찬, 2006). 이러한 방랑은 전지구적 차원에서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는 행위들이었다. 탈냉전이

본격화된 1980년대 후반부터는 불법이주, 망명신청자와 난민의 국제이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북한이탈여성들도 이런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들의 이동은 동북아 공동체의 변화를 불러오는 미세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개인적이고 가족적 이유에 기인한 북한이탈여성의 이동은 남한 사회에도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다. 즉 이러한 열림의 에너지는 나태한 기존의 생명력을 일깨울 수 있는 조건들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2) 무희망 대(對) 노마드의 우연성

(1) 무희망

북한이탈여성들의 희망은 생존적·심리적·사회적 결핍으로부터의 도피라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직선적 인과론에 의거해 볼 때 전혀 희망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무희망(hopelessness)을 가진 개인들은 그들에게 바람직한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고, 그들이 노력하는 일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 같고, 중요한 목적은 달성될 수 없고, 나쁜 문제들은 결코 해결될 수 없다고 인지한다(Beck and Steer, 1988). 연구참여자들은 북한에서 자신의 삶이 지속된다고 하더라도 생존의 유지를 위한 기본 욕구를 충족할 수 없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기아로 인한 자녀 생존의 실패, 가족전체의 쇠락, 미래를 위한 준비와 기대에 대한 상실감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다. 이러한 무희망의 지속으로 인해 연구참여자들은 그들의 인간성을 유지하고 생명력을 보존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현재의 상황이 어렵고 고통스런 무질서 속에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거나 보다 자세한 탐색을 통해서도 새로운 질서나 희망을 발견할 가능성을 찾을 수 없었다. 이는 개인의 위기가 아무리 해결이 불가능하고 혼돈스러워도 주의 깊게 접근하면 아직까지 인식하지 못한 포괄적인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다(James and Gilliland, 2001)라는 근원적 의미로의 접근도 어렵게 하는 것이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삶의 좌표가 모호했으며, 이에 따라 불안은 극도에 이르렀고 소위 혼돈이론(chaos theory)에서 말하는

무작위적 무질서 속에서 일어나는 궁극적인 우주의 질서를 발견할 수 없었다. 이는 개인의 생명력이 지속될 수 있다는 확신을 할 수 없는 혼돈스러움에서 성장과 변화의 희망을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 가지고 그때마다 계속 눈물이 났어요. 난 언제 남들처럼 꽃필... 잘 입고 잘 먹고 이런 날이 있어 볼까? 하고 계속 의문이 생겨요. 그런 날이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내 기억 속에는 그때 당시... 하도 집안이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계속 희망이 없는 거예요. 잘 살아 볼 날이 언제나 있을까? 그런 날이 있을 것 같지 않았어요(사례1)”

“그렇게 아이를 키우고, 내가 이렇게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아나니까 그다음에... 그때가 내가 90년도 91년도에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그렇게 불행하게 태어난 아인데... 북한에서 아이가 또 굶어죽었지요(사례4)”

“실지로 굶어죽었거든요. 나는 그런 걸 너무 많이 봐나서... 근데요 너무 많이 봐났어요. 저 사람이 길을 가다가 길에 이렇게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 저도 그런 사람을 딱 보게 되면 우리는 경악하거나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 보고는 있다가 저 사람도 죽었네... 그저 이려고 마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한테 의지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도 우리를 먹여주기 힘들어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활이가요... 사실은 최하층 생활이예요(사례6)”

“왜냐하면 아무리 학교 오라 오라해도 안 가는데. 왜 배고프니까... 배고프니까. 그리고 우리집 식구 3명 살면 3명이 각자 자기 밥벌이... 자기 밥벌이 자기가 해야 되거든요. 혼자 벌어서는 3명이 못 살거든요. 절대로. 죽도 못 먹어요. 그러니까 3명이 살면 3명이 자기 각자 밥벌이 다 해야 되고, 가만 앉아 있으면 굶어 죽거든요(사례8)”

연구참여자들은 북한에서 여성으로서의 삶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 북한에서 빈곤한 가정의 생활 책임은 대부분 여성들이 지게 된다. 북한에서 남성은 필수적으로 국가에서 지정해 주는 직업에서 일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가족들은 배급을 받아서 생활을 하지만

그 배급이 중단되거나 줄어들면 가족의 생계를 여성들이 책임져야 한다. 이 경우에 여성들은 장마당에서 장사를 하거나, 국경지대에 거주하는 여성들은 중국으로 밀입국하여 친척에게 원조를 구하거나 장사를 시도한다(박영호 외, 2010). 북한에서 빈곤을 예방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가구 내 불평등이 존재하였다.

가구 내에서 빈곤을 경험할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직접 돈을 구하러 다니는 사람은 주로 여성이며, 이들은 친척이나 외부 도움을 직접적으로 요청하며 그 과정에서 수치심을 참는다(Fodor, 2006). 빈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남성이 적극적으로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드문 것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로 인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 자체가 남성에게 약함의 상징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노혜진, 2012). 연구참여자들의 경우에도 부채로 인해 집안 경제가 어렵게 되자 여성들이 장사를 시작하거나, 가정 경제의 책임을 여성이 지게 되었다. 또한 여성은 가부장사회에서 소유물로 인식되어 가족생활에서 생존 유지의 고통도 인정되지 않았다. 개인이나 가족의 생명력 유지를 위한 경계에서 언제나 선택과 해결은 여성의 몫으로 남겨지게 되었다. 그러나 모순된 책임을 해소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들은 언제나 희망적이지 않았다.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어머니, 그리고 자기 자신이 이러한 사회적이고 관습적인 얽매임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가 없었다.

“빛쟁이들이 들어오고, 와서는 뭐 우리 집이 괜찮게 살았으니까 좀 꾸러 놓은 것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다 가져가고 이불장에 이불 꺾데기 다 뽑아가고, 목화솜 다 뽑아가고, 가마 다 뽑아가고 그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우리 어머니가 우리를 그래도 뭐 먹여 살린다고...(사례8)”

“그러다가 제가 2000년도 이때부터 장사를 좀 했거든요? 결혼도 해야 되지 하니까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중략). 그러니까 돈이 얼마 없어가지고 나 혼자서라도 벌어서 장사를 해서라도 시집을 가야겠다는 이런 생각으로 제가 청진에 있는 장마당으로 가요...(사례9)

“내가 가정살림하다 보니까 우리 엄마가 살아온 게 너무 가슴 아프고 우리엄마가 너무 불쌍하고... 시집가서 엄마 잘 해주리라 했는데 내 생활도

그러지 못하니까(사례5)”

“집에 탁 오게 되니까 구박을 하던 거예요. 여자라는 거는 시집가서는 죽을 때까지 그 집 귀신이 돼야 되는데 왜 왔는가 하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산 걸 모르고(사례4)”

(2) 노마드의 우연성

학습된 무기력 이론이 말하는 것과 같이 연구참여자들은 반복되는 상실감으로 인한 무희망의 영원성으로부터 회복하기가 쉽지 않았다. 연구참여자들은 그들 자신에게 결코 바람직한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아무리 스스로 노력하더라도 그들이 원하는 바를 성취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더 나아가 이들은 삶의 희망이나 목표 자체를 상실하고 그저 주어진 수동적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연구참여자들은 이동 과정에서 새로운 운명, 즉 사람을 살리는 우연성을 자주 접하였다.

“도망 가가꼬 십자가 있는데 있잖아요. 그런데를 찾아가라고 하더라고요. 그 교회라는 소리겠쬬. 근데 저는 교회가면 죽는 줄 알았어요. 한국 사람들 믿는 교회니까.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가니까 조선족 분들이 많아요. 거기 가니까 저를 식당에 소개해주더라고요(사례2)”

“어떤 사람들은 그 두만강 건너서 모르는 집에 들어가는데 잘못 들어가면 청년들 있는 집에 들어가요. 그러면 청년들 있는 집에 가면, 그 청년들이 이 여자를 데리고 중국 안쪽에 들어가서 팔아먹거든요. 근데 내가 들어간 집은 할아버지, 할머니 집이거든요. 다행이쬬(사례4)”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가 맨날 아휴, 제 좀 고생해봐야 되는데... 고생해봐야 되는데... 이러거든요. 근데 이렇게 밖에 나가면 기차나 타고 다니면 내가 진짜 막 돈이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근데 꼭 길이 나타나거든요(사례7)”

연구참여자들이 경험한 우연성은 두 가지 가설이 가능한데, 하나는 최종 목적지에 도착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후가설적 측면이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현 시점에서 인과적 설명을 찾을 수 없는 또 다른 요인의 존재이다. 후자와 관련된 하나의 논리는 불교의 생명윤리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불교의 중요한 진리 중 하나가 연기(緣起)이다. 이 세상 만물은 독자적으로 존립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수한 존재들과의 끊임없는 상호 작용의 산물이라는 깨우침이다. 연구참여자들이 경험한 생존을 보장받는 우연이라는 것은 지역적, 역사적 상황 속에서 발현된 총체적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실천적 관점에서 불교윤리가 함축하는 의미를 보면, 사람들은 가까운 가족이나 이웃의 고통을 느낄 수 있고, 조금 더 감수성이 발달한 사람이라면 인종과 민족 사이의 어려움도 공감할 수 있을 것이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떤 사람이 더욱 섬세하고 심오한 감수성을 지니게 된다면 그는 모든 생명의 고통까지 느낄 수 있을 것이다(박찬구, 2011). 이들이 체험한 사람을 살리는 우연성은 그러한 문화적이고 역사적 바탕에서 비롯된 지역 공동체의 생명력을 유지하는 방편 속에서 나타난 현상일 수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무희망의 연속적 경험으로부터 역동적 이동 과정에서 온 우연성에 바탕을 둔 희망을 발견하였다. 삶의 다양한 사건으로부터 경험한 무희망의 지속은 사람들로 하여금 개인적 침체와 사회적 고립을 더욱 강화하게 된다. 연구참여자와 같이 무희망의 지속적 경험에서 침체와 고립의 개인적 경험을 노마드로서 이동하는 과정에 체험한 우연성의 기적을 통해 삶의 희망, 즉 절망으로부터 생명력의 회복을 이룬 존재가 우리 사회에 등장하였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지역 공동체의 사람을 살리는 문화적 힘이었던지, 개인에게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는 어떤 힘이었던지 간에, 그 존재가 새로운 공동체에 주는 의미는 무기력과 무희망이 아니라 희망과 긍정적 에너지를 전달해 주는 매개체의 등장이라 할 수 있다.

2. 방랑의 원초적 열망 대(對) 노마드의 창조성

연구참여자들이 보여준 방랑의 원초적 열망은 그들의 역동적 이동을 통해 형성된 노마드적 성향의 토대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노마드로서 연구참여자들이 보여준 새로운 가치의 창조는 새로운 정주지에서도 매너리즘에 갇힌 공동체에 활력을 주는 매개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아름다운 도주의 조건인 ‘방랑의 원초적 열망’은 노마드적 이동을 통해 형성된

‘성찰과 도전의 창조적 가치’를 새로운 정주지에 제공케 하는 단초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들의 구조적 가설에 대한 표현들은 아래에서와 같다.

1) 방랑의 원초적 열망

연구참여자들은 가족, 고향 그리고 내면의 당김과 밀어냄에서 갈등하게 되지만 방랑의 원초적 열망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았다. 이는 잘 짜여진 사회에서의 권태로움으로 인한 탈출이 아니라 살아 있는 생명체가 죽음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욕망이라고 할 수 있다.

도주, 그리고 모험의 추구를 위한 행위들은 문화적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것들이 사회를 만들어낸다. 눈에 띄는 무질서는 단순한 질서가 너무 구속적인 것을 수정해주며, 결과적으로 단순하고 단면적이지 않은 복합적인 질서를 가져다 준다(최원기·최항섭 역, 2008). 북한이탈여성들의 방랑 열망은 사회에 새로움을 가져다주는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열망의 바탕은 고귀한 생명체가 가진 원초적 생명력을 보호하기 위한 자연발생적인 추동에 의해서다. 이로 인해 결국, 개인적 열망에 의한 행위들은 사회를 새롭게 재편하며 생동감을 가지고 무질서로부터 새로운 삶의 총체적 패턴과 질서를 회복하도록 돕는다. 그래서 전지구적 차원에서 북한이탈여성의 탈북은 아름다운 도주라 할 수 있다.

“우리 아버지 내 강에 들어서자마자 OO야, 이제 마지막이다. 네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이러더라고요. 그 때까지만 해도 긴장하니까 빨리 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딱 잡으니까 아버지 내 빨리 가야된다고 아버지를 밀치고 들어섰단 말입니다. 오직 가겠다는 그 생각뿐이었으니까...(사례5)”

“그래서 도중에 아이가 죽었다니까는 그다음에 희망이 없거든요. 북한에서 희망이 없거든요. 살 집이나 있기가 하나. 그렇다고 나를 반가이 맞아줄 때 있는가 하고, 미련이 없죠. 그냥 가는 거죠(사례4)”

“그 다음에 중국에 왔는데 내가 다시 간다고... 중국에 일주일 있다가 간다고서리 왔는데... 왔다 가서리 뭐... 거기가 아무래도 생활이 더 좋고,

모든 게 다 이렇게 막 눈이 막 띄우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간거죠. 큰 이유 없이...(사례7)”

연구참여자들은 가족의 사회적 지위의 상실, 일상에서 사회적 도피처의 상실, 사회적 역할의 막힘 등을 경험하였다. 사회적으로 자리매김한다는 것은 개인의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과정이며 개인적 삶의 도구라 할 수 있다. 사회적 생존을 위해서는 내부 집단에서의 소속감이 필요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들이 존재해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 생존의 극단적 위기에 내몰리는 사람들이 최후로 선택하는 방법은 생의 포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연구참여자들은 무규범적 혼돈 상황이나 소속감의 부재 상황에서도 극단적 선택을 하지는 않았다. 대신에 이들은 개인의 생명력을 보존하기 위해 또 다른 선택이 필요한 시기임을 인지하게 된다.

“그나마 목숨이라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다가 갑자기 풀을 먹어 보세요 한번. 진짜 그게 배고프니까 잘 넘어가죠. 못 먹겠다 했다가도 굶어 보니까 잘 넘어가요. 그거 먹다보니까 안되겠는 거예요. 제가 그 때 19세 됐어요. 학교를 금방 나와 가지고 직장을 다녀야 되는데... 기능공학교도 가야 되는데 안 갔어요. 안가니까 잡아 가더라고요. 무직자들 잡아 가는데 있어요. 그래 거기서 도망가가지고... 도망가갸 저 중국으로 왔어요(사례2)”

“또 다른 순찰대... 그러니까 다른 계통 다른 구역 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또 잡혔잖아요. 그래 잡히면 또 내야 되는 거예요. 또 잡히면 또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법이 아니고요. 완전 저거는 칼자루 쥔 것들이 저절로 막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법을, 세상을 만들어 만드는 거예요(사례6)”

2) 노마드의 창조성

(1) 노마드적 성찰

연구참여자들의 방랑의 원초적 열망은 공간적 이동을 통해 내면의 지속적

변화, 즉 깨달음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개인의 심리적인 인지구조의 변화부터 사회전체의 구조적 차원까지 성찰하였다. 이들은 방랑을 통해 모든 사물의 어쩔 수 없는 유한성과 점진적 소멸의 불가역성을 위로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연구참여자들을 통해 본 이들의 성찰은 능동적 실천과 관련이 있었다. 인간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스스로의 행동을 설명하고 타당성을 부여한다면 위기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북한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강요받은 인지들의 견고함에서도 새로운 자극의 수용을 통해 자신과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삶을 선택하였다.

“우리 중국에 온 것만도 지금 죄인데 반역죄데... 한국까지 가면 뭐야 친척들이 목이 날아날 것이다. 한국만은 가지 말아야겠다(중략). 한국 가다가 또 잡히는 날이면 한국 시도하다가 잡히면 우리는 그저 총살감이다. 총살감이니깐 그저 이쯤에서 포기... 포기 하는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지요. 그래 가지고 방송을 듣고 그저 뭐... 집에만 오게 되면 방송을 듣고 그래 생각을 바꾸고...(사례1)”

“우리는 인식이 남조선이라고 하면 텔레비전에서 보기만 하면 드문드문한 장면씩 나오는 게... 월급을 제대로 안줘서 싸움하고 이런 것만 나오니까 그런 거 한 두개씩 보게 되면 무서운 공포심이... 북한 사람들은... 월급을 안줘도 말 못하고.. 배급을 안줘도 말 못하고.. 내 굶어 죽는 게... 인식이 굶어 죽는 게 몽땅 남조선 잘못된 것처럼... 사람들 인식이 다 이렇다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내 자신도 점점 바뀌고...(사례5)”

“중국에서 많이 살지 못했어도 중국에 그 단동 감옥에 있던 간수들 하는 거 보니까 정말 잘 해 주더라고요. 죄인이라 해서 막 다루지 않고 인권 대접을 하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이 사회는 이런 건가. 제 말하고 싶은 것도 말은 통하지 않지만 이 손동작으로도 이 사람이 뭘 원하고. 그 사람들이 우리가 뭘 원하고. 우리가 그 사람들이 하는걸 보게 되면... 아 이렇게 다 통하니까 우리도 이 나라에서 살 수 있겠다. 이 생각이 탁 들더라고요 (사례3)”

“진짜 내가 한국에서 살아야 되겠다. 이때까지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게 아니구나. 나는 이때까지 생각한 게 내 판으로서는 내가 똑똑하고 현명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구나. 내가 진짜 바라고 내가 희망하는 삶이 여기구나. 이런 것을 느낀거예요(사례9)”

연구참여자들의 방랑의 원초적 욕망에서 시작된 이들의 살려고 하는 의지와 행위는 고통스러운 요구이었지만 작은 개인으로서 자신의 존재를 뛰어넘어 보다 총체적이고 거대한 자신을 확인하는 출발점이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뿌리로부터 멀리 있는 식물만이 유일하게 살아남는다는 주체적 인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가족, 동지, 뿌리로부터 멀리 돌아서 생존하는 힘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자신과 사물 내에 존재하는 신적인 힘을 발견하였을 것이며, 이러한 힘의 전달체로서의 기능은 우리 사회를 새롭고 창조적으로 만들며,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찾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될 것이다.

(2) 노마드적 도전

연구참여자들의 도주 욕구, 즉 방랑의 열망은 여기 고정된 곳이 아닌 항상 저기 먼 곳을 바라보도록 하는 도전적 삶의 자세를 형성토록 했다. 어쩌면 이들에게 영토는 자아의 최종 종착점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며, 오히려 길을 잃는다는 것은 어디로 가고자하는 욕망의 새로운 과제라고 볼 수도 있다. 여정 속의 연구참여자들을 통해 역동적인 정주의 과정을 이해할 수 있었으며, 익숙함으로부터 창조성을, 낯선 것들을 친숙하게 만드는 힘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버지처럼 제 오빠처럼 남편을 믿었는데. 또 간다니까 또 이제가면 내 예감에 만나지 못할 것 같아요. 이별인 것 같아요. 그 때 당시 딱 느낌이 오는데. 이제 헤어지면 또 이별 같아요. 만나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가지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결심을 해봤지요. 내가 죽으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 내 같이 따라 가겠습니다(사례1)”

“우리 아버지하고 둘이 앉아서 울다 울다 내 그 다음에 생각한 게 사람이 이렇게 살아서 뭘 하겠니... 내 이렇게 살다가는 며칠 새에 우리 온 집안 식구들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 당시 우리 해산시에서는 밀수 담당자를 천한 직업으로 봤습니다. 차라리 내 사람들에게 조금 손가락질 받더라도... 이렇게 내 앉은 자리에서 굶어 죽는다면 나는 모진 일이라도 하지... 내가 죽더라도 모르겠다. 해보겠다는 생각에...(사례5)”

“이 먹고 사는게 왜 이렇게 힘들냐고.. 제발 먹고 사는 것만이라도 좀 해결 해줬으면 좋겠다고. 먹고 사는 것만이라도 좀 편히 먹고살 수 있게 좀 어떻게 그런게 됐으면 좋겠다고...(중략) 판 세상 좀 가봤으면. 먹고 사는 것만 해도 지장 없는데 좀 가봤으면(중략). 내가 아니면 우리 집을... 우리 집이 망하고 말거다.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생각예요... 사명감이라 할까(중략). 그런데 신경을 쓰니까 그런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 선을 찾자고 하니까(사례6)”

연구참여자들이 보여준 그들 삶에의 도전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이들의 도전 의식은 비생산적인 것의 생산성을 확인하는 하나의 사례일 수도 있다. 우리 사회가 살거나 생존하기 위해서는 비생산적인 무언가가, 생산이나 재생산과 함께 존재해야 한다. 연구참여자들은 물질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비생산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으나, 사회구조적인 순환적 차원에서 이해한다면 또 다른 생산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들은 현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속성인 안정성, 구체적 경계, 기능성 등을 지니고 있지 못하며 기본적으로 애매모호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것들에 대한 모험을 언제나 열어둔 존재다. 이는 구체적 물질로만 판단하는 한계를 넘어서는 일종의 사회적 활력소라 할 수 있다. 또한 도전적인 삶의 자세를 가진 연구참여자들이 외부자 관점으로 우리 사회를 본다면 우리들이 너무 친숙하여 사물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에 대해 예리한 안목을 갖도록 도움을 줄 수도 있다. 즉 연구참여자들이 가지는 도전적 삶의 자세를 통해 갇힌 인간을 포용하여 타자들로 하여금 열린 세상을 지향하도록 하는 새로운 매개체의 등장을 확인할 수 있다.

3. 인간 존엄성의 상실 대(對) 노마드의 상생과 통합

연구참여자들의 도주의 조건이 된 ‘인간 존엄성의 상실’은 역설적으로 ‘지역 공동체 상생’의 출발점이었다. 이들이 이주 과정에서 체험한 인권침해의 고통스런 외부 노출은 공동체에 상생의 화두를 던지며 자연스런 자기희생의 모습으로 자리매김 되었다. 또한 극한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자신을 해체하게 만들었으며, 동시에 이들은 노마드로서 이동하면서 구조적 견고함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사유가 가능케 되면서 ‘주변과 중심의 이분법적 구분을 뛰어넘는 존재’로의 변화가능성을 보였다. 이러한 현상들의 구조적 가설에 대한 표현들은 아래에서와 같다.

1) 인간 존엄성의 상실

인간은 자신의 생존만을 우선시하는 동물과 다른 존재이다. 그러나 연구참여자들은 북한 감옥에서 자존감의 상실, 무시와 경멸, 그리고 사람다움의 대우를 받지 못하였다. 수동적 의미에서 인간은 고통과 불행을 겪으며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존재로,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에게 무시당하거나 폭행 당해서는 안 되는 신성불가침한 존재이다(남경희 외, 2004). 이는 1948년 12월 유엔에서 만장일치로 모든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명문화한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에 구체화되어 있다. 북한이탈여성들도 인권의 보편성을 기준으로 하여 모든 다른 인간들과 마찬가지로 인간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규범은 타당하다. 그러나 개인적이고 공동체적인 수준에서 북한이탈여성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삶의 양식을 받아들이도록 제재하거나 강요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 속에서 연구참여자와 같은 북한이탈여성들은 폭력, 생명의 경시, 차별, 소외 등의 인간성을 상실하는 경험을 반복하고 있다.

“나는 그때 실지 나를 얼마에 팔아먹고 어찌고 이런 개념이 없었거든요. 없었다기보다도... 내가 그렇게 되리라... 나는 내가 팔려간다고 생각을 못한거예요. 시집보내준다고... 그냥 시집을 가는 줄 알았어요(사례6)”

“북한에서 나 데려온 아줌마는 나 천원에 팔아먹고, 중국 돈 천원에 팔아 먹고, 이 또 할때는 이 사람들에게 곱을 붙여가 2천원에 팔아먹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은 날 데려가 지금까지 같이 산 사람, 지금 결혼... 혼인신고한 사람한테 그 곱을 받고 팔아먹었어요. 그래가 결국에는 인신매매 당한 거죠(사례8)”

개인이 인간 존엄성을 지속적으로 위협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 무기력한 삶으로 자신을 침체시키기도 하지만 새로운 삶을 위해 몸부림치기도 한다. 제도적으로 보면, 초기 인권 담론에서도 백인, 유럽인, 성인 남자, 활동 가능한 신체, 평균이상의 지능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을 이상적 인간으로 규정하였다(Ife, 2010). 그러나 이후에 다양한 과정을 거치면서 모든 인간의 존엄성은 강조되었으며, 단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중받고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음은 불변의 진리가 되었다. 인간도 동물과 마찬가지로 신체적으로 성장했다가 병들고 노화해 죽어 가는 필연의 법칙에 지배를 받는다. 그러나 인간은 신체적 생존만을 위해 삶을 영위하지는 않으며, 경우에 따라 자신의 존엄을 무시당할 때에는 죽음도 불사하게 된다. 연구참여자들의 대부분은 탈북 과정에서 감옥생활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때 최소한의 인격체로서의 대우를 받지 못하였다. 재탈북의 경우, 개별적 생존을 심각하게 위협받게 됨에도 불구하고 인간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한 선택, 즉 아름다운 도주를 결정하게 된다.

“(감옥에 갔다 와서...) 그 다음에 결심이 굳어진 거예요. 내는 좀 췌게 망설였지요. 갈까? 80%... 한 60% 70%는 동의 했구요.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고 또 잡혀 들어가서 나오고 보니까 100% 선거예요. 결심이 확고해 진거예요. 가야된다. 북한 땅에서는 더는 못 있겠다(사례1)”

“내가 그 때 생각 하는게 저 북한이.. 내가 이런 말까지 해야 되겠는지는 모르겠어요. 나도 좀 쌍욕이 나오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자를 막 그 저... 어떻게 그렇게 해 놓는지... 때리고 발길로 차고, 임산부를 발길로 차가지고 다 유산됐어요(중략). 야 이 북한이란 사회 이렇구나 하는 걸 너무 느낀거라. 글썄 죄를 지었다 해도 어찌면 인권유린을 그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아니구나. 내 거기서부터 좀 생각이 달라졌어요. 다시 중국으로

가겠다...(사례3)”

“염색했다고 머리에 자본주의 사상 둔다고 머리채를 잡아다 벽에다가 때리는 거예요. 피투성이 되고... 진짜 개취급당하고 거기에서 저희가 진짜 이렇게 사는 거 차라리 죽기보다 못하다 내가 만약 여기서 진짜 내가 살아만 나갈 수 있다면 무조건 중국에 갈란다. 죽어도 이 북한에서 안 죽겠다고... 내가 죽어도 중국에 가서 죽지... 사람 마음이 모질게 되는 거예요(사례9)”

2) 노마드의 상생과 통합

(1) 노마드로부터의 상생

연구참여자들이 일상의 코뚜레에서 벗어나 생명력 회복을 위해 시도한 이탈은 또 다른 인간 존엄성 상실의 과정으로 옮겨지게 되었다. 이들은 북한의 감옥 생활, 중국에서의 인신매매 등과 같은 그들 삶에서 덧붙여지는 인권침해의 상황을 겪게 되었다. 그러나 이는 연구참여자들로 하여금 노마드로서 그들의 여정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들 개인들의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여 중국과 동남아시아를 경유하면서 새로운 정주지를 찾아 이동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참여자들은 개인과 개인, 개인과 사회 그리고 사회 간 연결의 중요성을 더욱 확인하게 된다.

“중국에서 딱 국경을 탁 넘고 베트남 들어서니까 영어 글씨가 보이거든요. 번쩍번쩍하게. 막 울었어요. 그제 살았구나, 중국 벗어나서 살았잖아요. 근데 중국은 넓적구리 한자니까. 그런데 그 중국 국경 탁 넘고, 베트남 도착하니까 베트남 이 꼬부랑 글씨가... 그 번쩍번쩍하니까 아, 그제 살았구나. 울었어요. 그래 그다음에 베트남에서 한 번 울고, 그다음에 캄보디아에서 다 수속해서 밤에 비행기가 떴어요(사례4)”

“뭐야 애타게 선을 못 잡았어요. 갈라고 애를 써도 소식을 아는 사람들. 한국으로 가는 길 모르니까. 길이 있으면 좀 안내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아이를 안고 나갔어요. 나가니까 내가 이야기 했어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 우리가 북한사람인데 이렇게 여기서 방황생활을 하는데 집도 없이 이렇게 숨어살고, 이렇게 고생 많이 하는데 좀 한국으로 가는 길이 있으며 한국으로

어떻게 갈 수가 없겠습니까(사례1)”

“그렇지만 이 시내 돌아다니며 한국 가겠다하면 뭣도 모르고 돌아 땡기면 또 붙들려 가지 않아요. 나쁜 사람한테. 그러니까 선을 몰라서 이때까지 오지 못 했죠(중략). 자기가 브로커를 아는게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한국을 연결해서 브로커를 소개해 줬다란 말입니다. 그래 그 사람 선을 해서 이렇게 브로커를 알게 돼서 이렇게 오게 됐지요(사례6)”

“중국에서 살면서 우리 신랑 자꾸 선(연결고리)을 찾은 거예요(사례7)”

연구참여자들의 이주는 인간성 회복을 위한 개별적 시도이지만 이들이 아시아 각국에서 보여주는 탈출 상황은 전지구적인 관심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개별 인권에서, 그리고 국제 관계에서도 미묘한 대립을 가져오고 있다. 지금까지는 이를 부각시키기 위해 서구와 한국 등의 국가들은 중국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인권 중심으로 대화를 갖자고 하고 있으나, 중국이나 북한은 국가 주권의 문제라며 냉소적이거나 적대적 의심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탈여성들의 동아시아 이동이 공동체의 상생에 기여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국제적 분쟁, 갈등의 매개체로 기여할 수도 있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들은 동아시아의 잠재된 이슈를 보다 적극적으로 불러내고 이를 해결하는데 전지구적으로 동참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연구참여자들도 이동을 위해 선(연결고리)을 지속적으로 찾으며 생존과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노마드의 생활을 하였다. 이러한 역동성은 주변 세계를 움직이게 하였고 보다 적극적으로 공동체의 상생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한다. 상생(相生)이란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생명체 및 모든 존재의 소중함을 인정하여 자신의 권리와 똑 같이 이들의 정당한 권리를 존중하면서 이들과 서로 도우면서 함께 살아감’을 말하는 것이다(이근식, 2005). 연구참여자들의 개별적, 가족적 생존을 위한 방랑은 지역 공동체에 상생 담론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연구참여자들이 동아시아를 이동하면서 만들어내는 개인적이고 국제적인 이슈들은 개인적으로는 고통이며

아름이지만 지역 공동체 차원에서 본다면 갈등인 동시에 상생의 담론 매개체로 볼려질 수도 있는 것이다. 연구참여자들은 아시아 각국을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실제적으로 이동하였으며, 끊임없이 공동체 속에 연결될 수 있는 고리를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그들의 살아온 그리고 살아감과 관련하여 인권과 같은 개념으로 구체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울림은 생명체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다른 존재에 알려지기 시작하였으며 점점 지역 공동체에 상생의 화두로 드러나고 있다.

(2) 노마드의 주변과 중심

남한으로 이주한 수많은 북한이탈여성들은 중국에서 장기간을 생활하면서 그 과정에서 다양한 고통스런 경험을 하게 된다. 연구참여자들의 경우에도 사후에 어떤 대처도 할 수 없는 성폭력과 신체적 폭력, 그리고 정신적 고통을 지속적으로 체험하였다. 이는 현재 자신들의 정주가 영속적 머무름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건너가는 공간으로 인식하게 하였다. 또한 이 과정을 통해 연구참여자들은 이전의 자신을 해체하는,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경험을 하게 되며 결국, 이는 자기 자신 내부의 중심과 주변의 해체라고 할 수 있다.

“저는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딱 태연하게 몇 번 시집을 간 것처럼. 뭐 지금 이런 사회를 법을 알아 놓으니까 당하면 억울한 게 있는데. 그때 당시는 억울하고 그런 게 저는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제 감정상에서는... (사례2)”

“나는 완전히 가버린거예요. 한번 그 당하고 나서는. 심리상태가 그 사람한테 첫날에 한 번 당해버리고는 그다음에 심리상태가 완전히 가버린거예요. 내가 아닌 다른 나 인거예요. 내가 아닌 내가. 세상을 사는거예요. 그러니까 뭐 음식상에 가도 술 마시자하면 같이 술도 먹고, 노래방에 가서 놀자면 같이 놀기도 하고 막 막 방탕인거예요(중략). 더는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버리고.. 그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산다는 게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너무 허무하고(사례5)”

연구참여자들이 자신의 인간 존엄성 상실로부터 탈피하고자 선택한 삶은 ‘방랑’과 ‘정주’라는 이중적 형태로 이어졌다. 따라서 이들은 기존 사회의 가치와 관습, 체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불명확한 탈출의 반복 속에 주변과 중심을 제대로 인식할 여건이 되지 않았다. 이들이 북한에서 주류사회에 속하였든지 아니든지 간에 탈출 과정에서는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는 표류하는 삶을 살았다. 이들에게 주변과 중심은 존재할 수 없었으며, 단지 생존과 비생존으로 구분되어 생존이 주류이고 중심적인 삶이었다. 연구참여자들이 보여준 불명확한 변방으로의 탈출이 새로운 주류로 전환되는 과정임을 알 수 있었다.

“시간이 지나니 처음 기대와 달라 내가 여기 사람들처럼 살 수 있다는 기대가. 기대가 점점(중략) 교포라 해요. 거기 더 편하더라고요. 못사는 나라를 만나게... 나라 없는 서러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딱 우리도 외국 사람 외국 사람인데 왜 베트남, 태국은 깔보고 미국, 일본은 인사하냐. 마찬가지로(사례2)”

“아버지가 그 회사에 다니면 자식들도 거기 가야 되는 거예요. 엄마가 농장원이면, 아버지가 농장원이면 딸도 무조건 농장원. 시내로 못 나가거든요. 노동자가 농민이 될 수 있어도, 농민은 노동자가 안되거든요. 그렇게 막 아버렸거든요(중략) 그치만 여기는 다르자나요. 자기가 하면 할 수 있는 만큼...(사례8)”

연구참여자들은 인간 존엄성 상실의 반복적 경험으로 추동된 역동적 이동을 통해 구조화된 주변과 중심의 이분법적 가치관으로부터 탈피하여 삶의 새로운 가치를 획득할 수 있는 내외부적 변화들을 체험하였다. 물론 실질적으로 북한과 탈북과정에서 신분 변화를 쉽게 할 수 없었으며, 남한에 정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여성들도 현재 지배적인 사회적 가치에 따른 주류사회로 쉽게 진입할 수 없을 지도 모른다. 연구참여자들이 경험하는 개인적 영역에서의 주류적 삶과 사회적 영역에서의 주류적 삶은 이제 그 중요성이 다르게 정의될 수도 있다. 현재의 시대는 명확한 정체성과 제도적 안정성을 중요시하던 시대를 넘어서 불명확성이라는 것에 대한 새로운 모험을 감행

하기 시작하는 대규모의 탈출이 주류를 차지하는 시대가 되고 있다(최원기·최항섭 역, 2007). 연구참여자들의 이중성, 애매모호함, 표류하는 삶을 통해 주변과 중심, 주류와 비주류의 견고한 틀의 답답함을 성찰하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또한 이들의 역동적 이동과 정주는 이분화된 구조적 실체에 새로운 통합적 활력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이는 청소년들이 공유하는 습관, 예술, 특히 음악이 점점 충동적이고 애매모호하지만 이것이 주는 사회적 가치와 같은 의미라 할 수 있다.

V. 결론

연구참여자들은 가난과 인간의 한계로부터 태동한 생의 열망을 유지하기 위해 공간적 이동을 시도하였다. 이후 이들은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부유하는 이방인의 삶 속에서 불안과 공포 및 무력감을 내재한 채로 살아왔다. 또한 이들은 공간적 이동뿐만 아니라, 그것이 설령 생존적 절박함으로부터 태생되었다 할지라도 자신들의 가치와 삶의 방식을 끊임없이 바꾸어 가는 창조적 행위, 즉 내면의 유목적 사유와 변화도 지속적으로 이행하였다. 니이체는 인간을 건너가는 존재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에서 미래로, 악에서 선으로, 무지에서 지로, 불완전성에서 완전성으로, 시간성에서 영원성으로, 동물적 상태에서 신적인 상태로, 차안(此岸)에서 피안(彼岸)으로 이행하기 위해 위험한 외줄타기 곡예를 하는 곡예사라는 것이다(남경희 외, 2004). 연구참여자들의 위험한 곡예, 즉 북한, 중국, 남한으로 이어지는 진자같은 노마드적 유랑이 이들의 내면 속에만 잠재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정주지로 선택한 남한사회에도 어떤 울림을 전해 줄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었다.

북한이탈여성들은 생존을 위한 투쟁 이후에 나타나는 상실, 부재, 불안, 공포, 무력감 그리고 우울 등의 개인적 고통을 해소해야 한다. 어떤 이들은 외상의 공포로 인해 극단적으로 위축된 삶으로 움츠러기도 하고, 또 다른 이들은 이전의 자신을 해체하고 새로운 가치 속에서 열정적이고 도전적 삶을 살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의 유목민적 유랑의 세월 속에서 경험한 그리움과

회한이 지워질 수는 없다. 이는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노마드적 삶을 치유 하였던 유대계 독일 여성시인 로제 아우스렌더(Rose Ausländer)의 시에서도 잘 나타난다⁷⁾.

아직까지 부족하지만 남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여성들의 유목적 삶을 이해하려는 시도들이 있어왔다. 이들 연구들은 주로 북한, 중국 등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제노포비아적인 환경 속에서의 체험과 결과들, 치유적 접근, 생존적 원조, 그리고 미래적 활용 등에 관한 내용들이었다. 예를 들면, 탈주과정에서 경험한 감옥생활, 고문, 성폭행, 인신매매 등과 이러한 문제에 기인한 우울과 외상후스트레스 같은 정신적 문제, 치유를 위한 심리 사회적 접근, 지원의 적절성과 미래 통일역군으로의 활용 가능성 등이다. 이런 관점은 객관화시킨 인본주의적 접근, 그리고 사회적 비용 부담에 바탕을 둔, 즉 사회적 가치가 없거나 부족한 대상으로 북한이탈여성을 전제하는 것이다. 물론 북한이탈여성들의 주관성을 강조하는 연구들도 등장하고 있으나 이들의 노마드적 삶이 우리사회에 던져주는 울림을 주목하고 있지는 못하다.

연구참여자들의 진술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결과, 이들의 역동적 이동은 사회적 부담만 가중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사회적 존재로서도 의미부여될 수 있었다. 북한이탈여성들은 생명력 보존과 방랑 열망의 혼합적 작용으로 이주를 시작하지만 그들의 체험과 선택 과정에서 나타난 노마드적 사유와 행위는 새로운 정주지에 창조적 일깨움을 통해 조화로운 사회를 위한 자극 요인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노마드로서 북한이탈여성들이 우리 사회에 던져 줄 수 있는 몇 가지 함의들은 다음과 같다.

우선 경계에서 사유하는 존재의 등장이다. 북한이탈여성들은 노마드로서 내부에서 외부로, 그리고 외부에서 내부로의 끊임없는 사유 과정을 경험하였다. 이들은 인간의 한계 상황 속에서 자신을 해체하며 노마드적 인지로

7) “유럽 미국 유럽을
풍선그네로
날아다니며
나는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살아간다”(박정희, 2012에서 재인용).

재구조화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생명에의 열망, 방랑의 원초적 열망에 기인되었지만 일상의 침체로부터 과감한 일탈, 그리고 지속적으로 모호한 삶으로부터의 선택을 유지하여 자신을 보다 열린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였다. 이들은 생사의 경계에서 내부적으로 침전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를 탐색하고 열망하면서 열린 세상을 선택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북한 내부에서 중국이라는 외부, 중국에서 북한과 남한을, 남한에서 중국과 북한에 대해 노마드로서 경계인의 관점에서 사유하고 움직여 온 것이다. 이렇게 경계를 넘나드는 새로운 에너지원은 공동체에 생동감과 창조성을 부여할 것이다.

경계에서 사유하는 노마드로서의 북한이탈여성은 주변과 중심의 모호함에 익숙해 있다. 노마드로서 초기의 내적 중심 혹은 존재 이유는 이동 과정을 거치면서 변화되었다. 이들은 육체적 생존으로부터 정신적 생존, 죽음의 열망으로부터 삶의 열망, 집착으로부터 해체 등과 같은 내적 중심의 역동적 흐름과 늘 함께 해 왔다. 연구참여자들에게 고정된 내면의 중심과 주변이란 애초에 있을 수가 없었다. 또한 이들의 가족적, 사회적 차원에서의 주변과 중심도 이분화되어 고정된 것이 아니었다. 북한의 가부장적 가족제도에서는 주변부이었지만 가족 생활의 중심이었고, 북한에서 주류사회에 속하였지만 중국과 남한에서는 주변부에 속하는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다. 또한 남한사회의 광범위한 이주민 개념 속에서는 중심의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다. 따라서 노마드로서 북한이탈여성들은 우리사회의 주변과 중심의 견고한 이분법적 가정을 보다 유연하게 사유할 수 있는 존재이다. 이러한 창조적 이동은 새로운 공동체를 보다 역동적으로 만드는 매개적 역할을 할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사회에서 논쟁 중인 생산적 존재인가, 비생산적 존재인가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제공한다. 우리사회 일부에서는 북한이탈여성들을 위한 다양한 정착지원제도의 사회적 비용을 우려하기도 한다. 이는 단순히 북한이탈여성들의 남한사회에서 생산 활동, 혹은 사회적 긍정활동의 참여 유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물론 북한이탈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비용효과를 객관화시켜 검증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가 간과하는 것은 노마드적 생산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연구참여자들의 진솔로부터 확인한 새로운 초인⁸⁾의 등장, 즉 한계 상황 속에서 개인의 해체를 통한 새로운

가치 형성, 끊임없는 열린 자세, 멈춤 없는 성찰, 모호함으로부터의 도전 등을 지닌 존재의 유입이다. 이를 객관적인 수치로 입증하기는 어렵지만 아주 미세한 부분 체계의 변화가 궁극적으로 전체 체계를 변화시킨다는 체계이론(System theory)으로 그 가치를 설명할 수 있다.

또 다른 차원에서 북한이탈여성들은 노마드로서 독특한 위치를 남한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다. 다른 국외 이주민들과 같은 노마드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과는 다른 민족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연구자들은 자주 북한이탈주민들과 다른 국외 이주민들을 연속선상에서 다루고 있지만 북한이탈주민들은 그들과 명확히 구분되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북한이탈여성이 가지는 독특한 노마드 정체성은 한국의 다문화사회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서구를 포함한 모든 사회에서 민족, 인종 등이 다른 이주민에 대한 반감은 존재한다. 개인적 차원의 잠재된 불만을 가지기도 하지만 어떤 사회는 제노포비아적 긴장을 표출하기도 한다. 한국사회에서도 국외 이주민에 대한 반감을 넘어 일부 혐오적 표현도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탈주민, 특히 북한이탈여성은 이들과 다른 관점에서 보려 한다. 대다수 남한주민들은 이들이 경험한 극한의 상황, 인권 유린, 사회적 소수자가 가지는 고통, 혹은 미래 자원으로서 인정하며 열린 자세를 가진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이탈여성들은 다문화사회 통합 과정에서 심리적 혹은 사회적 중재, 조절의 역할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를 극대화하고 체계적으로 만드는 것은 연구자와 실천가들이 해야 하는 일이다. 북한이탈여성들은 노마드적 정체성을 가진 다른 이주민들과 다른 민족적 정체성도 동시에 가진 독특한 존재로서 다문화사회의 통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노마드로서 아시아를 유랑한 북한이탈여성들은 지역 공동체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우선 아직은 소수이지만 이들은 구속되고 억압된 삶의 영역에서 특정한 가치와 삶의 방식에 매달리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을 바꾸어 가는 창조적 행위를 지속하며 아시아를 이동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의 이동이 버려진 불모지를 새로운 생성의 땅으로 전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이들의 이동 경로에서 나타난 창조적 에너지가 사라지지는

8) “초인이란 인간 너머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넘어가는 과정으로서의 인간의 삶을 사는 존재”(김은중, 1999).

않을 것이다. 보다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북한이탈여성들의 이동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들로 인해 나타난 세계적 관심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이들이 북한과 중국에서 경험한 인권 침해 사례들을 서구는 주목하고 있다. 물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의 관심은 다양한 정치적 맥락에 의해 작동되고 있겠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 분명한 것은 북한과 중국에서 인권, 즉 개개인의 인간 존엄에 대해 고려할 수밖에 없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북한이탈 여성의 이동 경로인 북한과 중국은 한국을 비롯한 서구의 인권 중심 담론에 대해 국가 주권의 문제라며 냉소적 혹은 적대적인 의심으로 바라보고 있다. 물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인권 담론은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수단적 성격도 강하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인권 담론을 통해 비인간성의 회복, 인간 중심의 삶, 개인의 행복추구권 등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된다면 이는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 북한이탈여성들의 아시아 이동은 ‘문젯거리’로만 취급되었지만 이들이 노마드로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창조성이 지역 공동체에 새로운 담론, 즉 인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논의를 시작하게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노마드로서 북한이탈여성들은 강인한 생명력을 새로운 공동체에 내어주었다. 이들은 무희망과 무기력한 일상을 뛰어넘어 원초적 본능의 일깨움으로 자신을 해체하며 생명력을 회복하였다. 물론 그 과정에서 일부는 존재의 본질을 알아차리지 못하여 회복이 더딘 경우도 있었지만 대다수는 창조성과 긍정성을 통해 새로운 가치, 새로운 정주지를 찾고 그 속에서 자신의 생명력과 본질을 찾아 나아갔다. 이러한 연구참여자들의 창조적 활동은 새로운 거주지의 무력한 존재들을 일깨우는 역할을 할 것이다. 즉 이들은 새로운 공동체 내에 존재의 가치 상실, 무기력감, 절망감의 평면에 갇힌 내적 자아들을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불러내는 구르는 돌로서의 기능을 할 것이다. 이는 연구참여자와 같은 북한이탈여성들에게 의미 부여될 수 있는 ‘가치 없다는 존재들’의 가치를 다른 차원에서 확인하는 것이 된다.

이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에서 중요한 표본 추출의 두 가지 기본적인 원리인 적절성과 충분성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연구참여자를 선정하였지만 2000년대 이전 혹은 초반 탈북한 여성들이 주 대상이었다. 따라서 2000년대

중반 이후 탈북한 여성들의 특성은 다를 것이며, 또한 연구참여자들의 학력이 대부분 고졸이며 사회경제적 지위도 높지 않다는 특성을 가진다. 이 연구는 린컨과 구바(Lincoln and Guba, 1985)가 구분한 사실적 가치, 적용성, 일관성, 중립성을 기준으로 삼아 엄격성 평가를 하였지만, 상기의 연구참여 자 특성 등과 같은 질적 연구가 가지는 제한점이 있음을 밝힌다.

참고문헌

- 김누리(2006). 머릿속의 장벽. 경기 : 한울아카데미.
- 김승현·최빛내(2013).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PTSD 프로그램 효과 검증 :탈북여성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여성. 제18권 제4호. 533-548.
- 김은중(1999). “노마드적 주체와 텍스트의 그늘”. 이베로아메리카연구. 제10집. 93-112.
- 김용찬(2006). “국제이주분석과 이주체계접근법의 적용에 관한 연구”. 국제지역연구. 제10권 제3호. 81-106.
- 김현경(2012). “북한이탈여성의 역경을 통해 인식된 성장 과정 연구: 근거 이론방법을 적용하여”. OUGHTOPIA. 제27권 제1호. 33-66.
- 김형식(2000). “남북한 사회복지체계의 비교와 통합 방안”. 사회복지정책. 제11권. 183-208.
- 나광은(2004). “통일 이후 동독인들의 일상의 변화와 사회, 문화 갈등”. 뷔히너와 현대 문학. 제23권. 429-454.
- 남경희·양옥경·김정자·김미옥·한혜경·박인선·윤현숙·이은주·신혜령·김미원·안혜영(2004).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서울: 나눔의 집.
- 남정희(2004). “이상 시에 나타난 ‘권태’ 고찰”. 반교어문연구. 제16권. 5-29.
- 노혜진(2012). “가족 안에서 여성은 어떻게 빈곤을 경험하는가?: 빈곤가구 내 성별 불평등”.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제6권 제2호. 67-101.
- 미셸 마페졸리(2008). 노마디즘. 최원기·최항섭(역). 서울: 일신사.
- 박성정·오은진(2012). “북한이탈여성의 직업교육훈련 경험과 개선 과제”. 직업교육연구. 제31권 제4호. 135-152.
- 박영호·김수암·이금순·홍우택(2010). 북한인권백서. 서울: 통일연구원.
- 박정희(2012). “노마드로서 경계인의 삶과 작품세계-유대계 독일 여성시인 로제 아우스렌더를 중심으로”. 독일문학. 제121집. 97-122.
- 박찬구(2011). “동물권의 문제와 상생의 생명윤리”. 윤리연구. 제83집. 53-76.
- 신경림·조명옥·양진향(2004). 질적연구방법론.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이근식(2005). “자유와 상생: 신자유주의와 새로운 직업윤리의 모색”. 기업 윤리연구. 제10권. 87-120.
- 이정재(2001). “한국 축제의 길-일상과 일탈”. 인문학연구. 제5권. 29-69.
- 장명학(2006). “독일의 제노포비아 현상에 대한 연구: 통일 이후의 사회, 경제적 불안과정 제노포비아의 확산”. 사회과학연구. 제14권 제2호. 324-359.
- 전우택(2000). 사람의 통일을 위하여. 서울: 오름.
- 정병호·전우택·정진경(2006). 웰컴투 코리아; 북조선 사람들의 남한살이.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부.
- 조운경(2007). “현대문화에 있어서 노마디즘과 이동성의 의미-Attali Maffesol의 논의를 중심으로”. 불어불문학연구. 제66권. 325-353.
- 조정아·임순희·정진경(2006). 새터민의 문화갈등과 문화적 통합 방안. 서울: 한학 문화.
- 최영희(1993). 질적간호연구. 서울: 수문사.
- 한인영·홍선희(2012). “북한이탈여성의 한국사회 적응에 대한 주관적 인식 유형 연구”. 주관성 연구. 제25권. 75-93.
- 홍기형(1997). “질적 접근으로서의 현상학적 연구방법”. 한국 교육문제 연구소 논문집. 제12호. 23-38.
- 통일부(2015.02.20.). “통계자료” <http://www.unikorea.go.kr>에서 2015.02.20. 인출
- Baider, L., Ever-Hadani, P., & DeNour, A. K.(1996). Crossing New Bridges: The Process of Adaptation and Psychological Distress of Russian Immigrants in Israel. *Israel Journal of Psychiatry*, 59, 175-183.
- Beck, A. T., & Steer, R. A.(1988). *Manual for the Beck Hopelessness Scale*. San Antonio, TX: Psychological Corp.
- Bemak, F., Chung, R., & Pedersen, P.(2003). *Counseling Refugees: A Psychosocial Approach to Innovative Multicultural Interventions*. Connecticut: Greenwood Press.
- Ben-David, A., & Lavee, Y.(1994). Migration and marital distress:

- The case of Soviet immigrants. *Journal of Divorce and Remarriage*, 21, 133-146.
- Chung, R. C.-Y.(2001). Psychosocial Adjustment of Cambodian Refugee Women: Implication for Mental Health Counseling. *Journal of Mental Health Counseling*, 23(2), 115-126.
- Chung, R. C.-Y., & Bemak, F.(2002). Revisiting the California Southeast Asian mental health needs assessment date: An examination of refugee ethnic and gender differences.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80, 111-119.
- Egli, E. A., Shiota, N. K., Ben-Porath, Y. S., & Butcher, J. N.(1991). Psychological interventions. In J. Westermeyer, C. L. Williams, & A. N. Nguyen(Eds.), *Mental health services for refugees*(pp.157-188). Washington, DC: U. 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Fodor, Eva.(2006). A different type of gender gap: how women and men experience poverty. *East European Politics and Societies*, 20(1), 14-39.
- Ife, J.(2010). *Human Rights from Below-Achieving rights through community development*. N. 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James R. K., & Gilliland, B. E.(2001). *Crisis Intervention Strategies*. CA: Brooks/Cole.
- Lincoln, Y., & Guba, E.(1985). The impact of illness on later life marriag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1, 65-172.
- Potocky-Tripodi, M.(2002). *Best Practices for Social Work with Refugees and Immigrants*. Columbia: Columbia University Press.
- Ying, Y.(1999). Strengthening intergenerational/intercultural ties in migrant families: A new intervention for parents.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7, 89-06.

Abstract

Reinterpretation of the Migration of North Korean Women Defectors : What is the Meaning as a Nomad?

Tae-wan Eom

This study aimed to reinterpret the migration of North Korean women defectors and identify new meanings that North Korean women defectors form in the South Korean society based on it. This study was performed through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 and this study's participants were 9 North Korean women defectors who had lived in China and South Korea more than three years respectively. The result of this study is as below. First of all, this study's participants, as nomads, decided to escape for the revival of life force and moved every country of Asia. In this category, the themes based on the statement of this study's participants are 'everyday nose-ring', 'hopelessness', 'original desire of wander', and 'loss of human dignity'. In the second place, dynamic migration of this study's participants was the beginning of nomadic thinking and change. That is, this study's participants repeatedly changed their values and ways of life. It became a lifestyle that enables to create 'value as a nomad'. In this category, the statements of this study's participants were categorized into the themes of 'recovery of nomad', 'creativity of nomad' and 'coexistence & integration of nomad'. In this way, the researcher discussed the possibility of North Korean women defectors in South Korean being able to create social value rather than being social burdens.

Keywords : North Korean Women Defectors, Nomad, Migration, Life Force, Value as a Nomad.